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연구 I : 일반적 현황 및 전공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박혜연*, 조덕연*, 이주현**, 김한솔*, 김진수***, 박수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단국대학교 병원 작업치료실

***국립재활원 재활보조기술 연구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선택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 현황에 따른 전공선택 요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 관심 취업영역, 국시불안 및 진로 확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 9개 학교, 3년제 대학 10개 학교의 총 4,500명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329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학과 선택시 작업치료(학)과 이외의 학과에 진학을 희망했던 응답자가 831명(62.5%), 입학 후에 소속변경 등 전공 변경을 희망한 응답자는 588명(44.2%)이었다.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추천에 의한 선택이 675명(50.8%), 스스로 선택이 654명(49.2%)였고, 추천에 의한 경우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 추천 이유는 취업, 전문직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주로 정보를 얻은 방법은 인터넷이 419명(64.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현재 관심 취업영역과 10년 후 의망 취업영역은 의료기관 취업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부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보통 이상의 국시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남자 학부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또한 진학확신은 입학 전보다 현재가 더 낮았으며, 1학년의 진학확신이 가장 낮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확신과 진로 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추후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학생, 작업치료(학)과, 전공선택 요인, 현황

I. 서론

대학은 자아실현, 전문 인력의 사회배출,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장으로써(송유진, 1995),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김수영, 2007). 대학선택

은 대학 진학 결정 단계, 정보 탐색 단계, 구체적인 대학 탐색 단계, 지원 단계 와 등록단계로 구분된다(Kotler & Fox, 1995).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 능력 그리고 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학교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골라 진학하고자 한다(이수진, 2010). 그러나 대학진학 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적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하혜숙, 1999). 입학 당시의 전공에 대한 태도가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집중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고(김계현, 손진희와 김선경, 1995), 전공 및 학업태도가 학생들의 학업행동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계현 등, 1995).

대학은 교육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도록 하고, 졸업 후에도 자신의 모교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야 한다(차영란, 2010). 또한 대학환경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급격하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지도 및 관리가 필수적 관심사가 되었다(송윤신 등, 2003). 21세기 대학은 점차적으로 학생 중심 체제로 변화되면서 대학 행정가와 교수 중심 체제보다는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비와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정원미와 이재신, 2001).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경제적 여건은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수준향상, 국민생활양식변화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장영호, 최미숙, 김은희와 양승경, 2007). 이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 수요 양상의 변화와 함께 보건 의료 부문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최종학, 2003). 보건의료 전문분야 중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전문 분야이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국내 작업치료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소개되어 부상 군인들의 치료 목적으로 시작하여 약 60년동안의 발전을 거쳤다(이재신, 이택영, 이지연과 유은영, 2004). 1979년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재활의학기술학 전공에서 물리치료과 작업치료학을 재활학과에서 가르치는 정규과정이 설립된 후 22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작업치료사를 단독 배출하였지만 1998년 작업치료학과로 분리되었고 1998년 광양보건대학을 시작을 2000년 이후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기관이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년제 24개교, 3년제 전문대학 27개교로 2원화되어 양성되고 있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1998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작업치료(학)과

의 신설 및 증원에 따라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질의 작업치료사 양성을 위해 예비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선택 요인의 파악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학입학 후 입학동기, 전공과 적성의 상이함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과 불만족을 야기하고 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학생 개인의 전공 모호성을 만들어 학과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하혜숙, 1999). 학부생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치료에 대한 의식 수준, 진로 확신 정도,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는 작업치료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정민예와 차유진, 2009). 작업치료(학)과가 신설 된지 30여년이 지난 현재,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및 전공선택 요인 등에 대한 조사는 학생들과 학과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과 인식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1) 일반적 현황 및 전공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2) 학과만족도 및 진로불안감을 중심으로 총 2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투고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선택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일반적 현황에 따른 전공선택 요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 관심 취업영역, 국시불안 및 진로 확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업치료(학) 교육과정안에서 전문 의료인인 작업치료사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취업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작업치료(학)과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전국의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 9개 학교, 3년제 대학 10개 학교 총 4,500명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N=1329)

			구 분	빈 도(명)	퍼 센트(%)
학 제			4년제	724	54.4
			3년제	605	45.6
응답자 대학 소재지	경상남도	3개 학교	302	22.7	
	강원도	3개 학교	238	17.9	
	경상북도	3개 학교	133	10.0	
	전라남도	2개 학교	107	8.1	
	대구광역시	1개 학교	89	6.7	
	충청남도	1개 학교	79	5.9	
	전라북도	1개 학교	75	5.6	
	경기도	1개 학교	74	5.6	
	대전광역시	1개 학교	72	5.4	
	광주광역시	1개 학교	62	4.7	
	충청북도	1개 학교	59	4.4	
	제주도	1개 학교	39	2.9	
학 년	1학년		483	36.3	
	2학년		457	34.4	
	3학년		335	25.2	
	4학년		54	4.1	
학생군	재학생		1139	85.7	
	복학생		133	10.0	
	편입생		28	2.1	
	재입학		27	2.0	
	기타		2	0.2	
성 별	여		977	73.5	
	남		352	26.5	
연 령	만 18세 미만		253	19.7	
	만 18세이상~만 22세 미만		797	59.9	
	만 22세 이상		279	20.4	
종 교	무교		608	45.7	
	기독교		381	28.7	
	천주교		126	9.5	
	불교		204	15.3	
	기타		9	0.7	
	이슬람		1	0.1	
고교 지역	경상남도		225	16.9	
	경기도		194	14.6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계속)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서울특별시	139	10.5
	경상북도	137	10.3
	전라북도	105	7.9
	전라남도	86	6.5
	부산광역시	84	6.3
	강원도	68	5.1
	인천광역시	62	4.7
	충청남도	51	3.8
	대구광역시	41	3.1
	제주도	40	3.0
	광주광역시	39	2.9
	울산광역시	27	2.0
	충청북도	21	1.6
	대전광역시	8	0.6
	해외	2	0.2
고등학교 계열전공	문과	564	42.4
	이과	518	39.0
	실업계	230	17.3
	기타	17	1.3

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는 총 1,329명이었고 응답자의 소재 대학은 전국 14개 지역 19개 학교가 응답하였다. 응답자중 1학년과 재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성별은 여자가, 연령은 만 18세 이상 22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출신 고교 지역은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계열전공은 문과가 이과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2. 연구 절차

설문지 제작을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문헌 고찰을 실시한 후 일반적 현황, 학과 만족도, 진로 성숙도, 진로 불안감, 장애인식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Y대학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중복되는 문항은 제외하고, 애매한 문장,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재구성 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약 40분 가량 소요되었다. 설문지 발송전에 각 학교

의 학과장님에게 공문을 보내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학생 수에 맞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후 회수 하였다. 설문 참여에 동의한 19개 학교에 총 4,5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3,666부(81.4%)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하지 않은 설문과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1,32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설문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인공사회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김상진과 김재엽(2007)에 사용된 항목을 참고하였고, 학과 선택과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한 문항은 송윤신 등(2003)의 논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정민예 등(2009)이 사용한 장애분류체계를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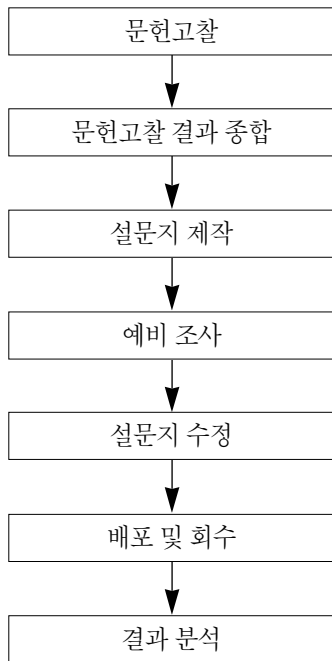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였으며, 국시불안 질문은 최현정(2008)의 연구를, 희망취업 분야 등에 대한 문항은 정태욱(2004)의 항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학과만족도 설문 내용은 Illinois 대학의 전공학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하였으며, 대학생의 전공학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항목을, 나동진과 송재홍(198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과, 작업치료(학)과와 관련 없는 문항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라는 단어를 작업치료(학)과로 작업치료(학)과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 성숙도 설문내용은 Crites(1978)이 개발한 척도를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변안한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 47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진로 불안 설문내용은 박종원(2002)의 연구에서 제작, 사용된 진로 미결정 설문지를 사용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작업치료 전공 선택 전 경험에 관한 문항, 학과 입학 후 현황과 관심 작업치료 영역에 대한 문항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작업치료 전공 선택 전 경험, 작업치료(학)과 선택 희망 여부, 작업치료(학)부생들의 희망 취업 영역과 관심 분야, 국시 및

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작업치료(학)과 대학생들의 현황 및 인식도 조사 연구는 총 2개의 논문으로 나누어져 투고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현황 및 전공선택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은 학년, 학생군, 성별, 연령, 종교에 대한 질문과, 가족 혹은 지인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건계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출신 고등학교가 속한 지역이 어디였는가, 고등학교 때 전공은 무엇이었는가, 통합학급 경험은 있는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입학 전 작업치료(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는가, 입학시 추천에 의해서 선택했는가, 추천에 의해서 입학하였다면 누가 추천을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스스로 선택해서 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했으며,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위의 13항목은 작업치료 입학 전 및 입학 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다. 입학 후 상황에 대한 질문은 총 11개 항목으로 입학 후 학생회, 학회, 소모임등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가, 학과 행사에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학과 입학 후 전과나 편입, 전공 변경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환 중 관심 질환은 무엇인가, 졸업 후 희망 취업지는 어디이며, 의료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싶은가, 해외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장 희망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졸업 후 10년이 지난 후 희망하는 취업지는 어디인가, 관심 작업치료 연령군은 무엇인가, 관심 작업치료 분야는 무엇인가, 현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인가, 입학시 진학(취업)에 대한 확신감은 어느 정도였는가, 현재 진학(취업)에 대한 확신감은 어느 정도인가로 구성하였다.

4. 분석 방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진로확신에 대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 검토는 Scheffe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

른 관심연령군, 관심 분야 및 성별에 따른 국시불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희망 취업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작업치료 전공선택 요인

가족 중 장애인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고 가족 중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보건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가 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경우와 장애관련 기관 봉사경험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작업치료(학)과로의 입학 전에 다른 과 진학을 희망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또한 작업치료(학)과로의 입학 후 소속변경을 생각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았고 작업치료(학)과

선택 시 추천에 의한 응답자가 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추천에 의해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경우 추천 지인은 부모님이 가장 많았고 추천이유는 취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4). 스스로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응답자의 정보 습득 방법은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스스로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직 종사가 가장 큰 이유고 꼽혔다(표 5).

2.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질환은 정신장애가 가장 많았고 관심 연령 군은 소아, 성인, 노인 순으로 나타났고 관심 작업치료 분야는 정신과가 가장 많았고 직업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재활보조공학, 작업치료관련 사업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관심 치료 연령군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아 치료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인 치료는 남학생의 관심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표 2. 작업치료 전공 선택 전 경험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가족 중 장애인 유무	있다	386	29.0
	없다	943	71.0
가족 중 보건직 종사자 유무	있다	836	62.9
	없다	493	37.1
통합학급 경험	있다	281	21.1
	없다	1048	78.9
장애관련기관 봉사경험	있다	827	62.2
	없다	502	37.8

표 3. 작업치료(학)과 선택 희망여부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입학 전 다른 과 진학희망 여부	희망 했었음	831	62.5
	희망하지 않음	498	37.5
입학 후 소속변경 희망 여부	희망한 적 있음	588	44.2
	희망한적 없음	741	55.8
학과선택 계기	추천에 의함	675	50.8
	스스로 선택함	654	49.2

표 4. 작업치료(학)과 선택을 추천에 의한 경우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추천 지인	부모님	204	35.0
	학교 선생님	164	28.1
	형제, 자매	59	10.1
	학교선배	26	4.5
	친구	10	1.7
	기타	120	20.6
	합	583	100
추천 이유	취업	307	45.5
	전문직	169	25.0
	적성	82	12.1
	지인의 근무	40	6.0
	수능점수	26	3.8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목적	11	1.6
	기타	40	6.0
	합	675	100

표 5. 작업치료(학)과 선택을 스스로 한 경우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정보 습득 방법	인터넷	419	64.0
	홍보책자	72	11.0
	친구	49	7.5
	봉사활동	42	6.5
	TV방송	5	0.8
	기타	67	10.2
	합	654	100
선택 이유	전문직 종사	315	48.3
	취업	89	13.7
	재활분야에 대한 관심	84	12.9
	전문직 통한 사회봉사	74	11.4
	적성과 맞아서	43	6.7
	수능점수	26	4.0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목적	4	0.6
	기타	16	2.4
	합	651	100

표 6.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분야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관심 질환(중복응답)	정신장애	412	13.0
	지체장애	383	12.1
	자폐성장애	362	11.4
	지적장애	355	11.1
	언어장애	331	10.4
	뇌병변장애	315	10.0
	시각장애	182	5.7
	청각장애	141	4.4
	심장장애	83	2.6
	호흡기장애	69	2.1
	안면장애	49	1.5
	신장장애	31	1.0
	간질장애	21	0.7
	간장애	12	0.4
	장루,요루장애	7	0.2
	생각해 본 적 없음	238	7.5
	모르겠다	185	5.8
합		3176	100
관심 연령군(중복응답)	소아	792	59.6
	성인	632	47.6
	노인	425	32.0
	생각해 본 적 없음	93	7.0
	기타	13	1.0
합		1955	100
관심 작업치료분야(중복응답)	정신과	549	24.0
	직업재활	507	22.2
	지역사회 작업치료	452	19.8
	재활보조공학	337	14.7
	작업치료관련 사업	279	12.2
	정책분야	123	5.4
	기타	41	1.7
합		2288	100

표 7. 성별에 따른 관심 치료연령군

(N=1329)

구 분		관심 수준 ($M \pm SD$)	z	p
소아	남	0.39 ± 0.48	-8.962	.000
	여	0.66 ± 0.47		
성인	남	0.59 ± 0.49	-5.426	.000
	여	0.43 ± 0.59		
노인	남	0.32 ± 0.47	-.458	.647
	여	0.31 ± 0.46		
관심없음	남	0.10 ± 0.30	-3.013	.003
	여	0.05 ± 0.23		
기타	남	0.10 ± 0.30	-2.174	.030
	여	0.57 ± 0.23		

표 8. 성별에 따른 관심 치료분야

(N=1329)

구 분		관심 수준 ($M \pm SD$)	z	p
지역사회	남	0.32 ± 0.46	-.881	.378
	여	0.34 ± 0.47		
정신과	남	0.31 ± 0.46	-4.216	.000
	여	0.44 ± 0.49		
재활보조공학	남	0.32 ± 0.46	-3.534	.000
	여	0.22 ± 0.41		
직업재활	남	0.36 ± 0.48	-.676	.499
	여	0.38 ± 0.48		
작업치료 관련 사업	남	0.21 ± 0.40	-.016	.987
	여	0.20 ± 0.40		
정책분야	남	0.09 ± 0.29	-.519	.604
	여	0.09 ± 0.28		
기타	남	0.03 ± 0.18	-.410	.682
	여	0.02 ± 0.16		

났다. 연령군을 구별하는 것에 관심없다는 의견에서도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7).

성별에 따라 관심 치료분야에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정신과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재활 보조공학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8).

3.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취업영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취업지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십년 후 희망 취업지는 의료기관, 대학교수(국내), 해외취업 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으로의 취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종합병원(대학병원), 재활병원, 아동발달 연구소(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들 중 희망하는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다(표 9).

성별에 따른 희망 취업지는 남학생은 의료기관, 해외취

표 9.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희망 취업지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졸업 후 희망 취업지	의료기관 취업	908	68.3
	해외취업	143	10.8
	공무원	65	4.9
	대학원(국내)	56	4.2
	대학원(국외)	36	2.7
	보건의료기기업체	34	2.6
	생각해본적 없음	23	1.7
	의학전문 대학원	19	1.4
	장애인 관련 공단	19	1.4
	기업체	5	0.4
	기타	21	1.6
합		1392	100
십년 후 희망 취업지	의료기관 취업	475	35.7
	대학교수(국내)	238	17.9
	해외취업	210	15.8
	공무원	142	10.7
	생각해본적 없다	61	4.6
	보건의료기기 업체	47	3.5
	장애인 공단	42	3.2
	의학전문 대학원	40	3.0
	대학교수(국외)	21	1.6
	기업체	12	0.9
	기타	41	3.1
합		1392	100
의료기관	종합병원(대학병원)	571	62.6
	재활병원	195	21.4
	아동발달 연구소(센터)	56	6.1
	보건소	40	4.4
	노인요양병원	21	2.3
	복지관	20	2.2
	재활공학센터	8	0.9

업, 국내 대학원, 해외 대학원, 보건, 의료기기 업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의료기관, 해외취업, 공무원 순으

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의료기관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표 9.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희망 취업지(계속)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합	기타	1	0.1
		912	100
해외취업	미국	44	30.8
	호주	43	30.0
	캐나다	42	29.4
	영국	7	4.9
	일본	5	3.5
	기타	2	1.4
	합	143	100

표 10. 성별에 따른 희망 취업지

(N=1329)

구 분		빈 도(명)	퍼센트(%)
의료기관	남	223 / 352	63.3
	여	685 / 977	70.1
해외취업	남	35 / 352	9.9
	여	108 / 977	11.0
공무원	남	12 / 352	3.4
	여	53 / 977	5.4
국내 대학원	남	24 / 352	6.8
	여	32 / 977	3.2
해외 대학원	남	14 / 352	3.9
	여	22 / 977	2.2
의학전문 대학원	남	5 / 352	1.4
	여	14 / 977	1.4
장애인관련 공단	남	5 / 352	1.4
	여	14 / 977	1.4
기업체	남	4 / 352	1.1
	여	1 / 977	0.1
생각해본적 없음	남	9 / 352	2.5
	여	14 / 977	1.4
보건, 의료기기 업체	남	13 / 352	3.6
	여	21 / 977	2.1
기타	남	8 / 352	2.2
	여	13 / 977	3.6

4.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국시불안 및 진로 확신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현재 국시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국시에 대한 불안감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시 불안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높다’로 응답한 인원이 659명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였다. 입학시 진학확신은 전체 대상 중 693명이 ‘매우 높다’와 ‘높다’로 응답하여 보통 이상의 진학확신을 보였고, 현재 진학확신은 보통 수준의 진학확신을 보였다(표 11).

성별에 따른 국시불안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중 학년에 따른 진로확신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과 지원시 추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확신은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확신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3)

표 11. 응답자의 국시불안 및 진학확신

(N=1329)

구분	평균	빈도(백분율)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생각해본 적 없다
국시불안	3.54	51(3.8)	86(6.5)	465(35.0)	439(33.0) 659(49.6)	220(16.6) 68(5.1)
입학시 진학확신	3.56	20(1.5)	97(7.3)	504(37.9)	512(38.5) 693(52.1)	181(13.6) 15(1.1)
현재 진학확신	3.00	79(5.9)	273(20.5)	603(45.4)	284(21.4) 362(27.3)	78(5.9) 12(0.9)

표 12. 성별에 따른 국시불안

(N=1329)

구분	불안 수준 (M ± SD)	z	p
국시불안	남	2.94±1.31	-5.464
	여	2.52±1.19	

표 13.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에 따른 진로확신

(N=1329)

구분	학생수 (M ± SD)	F	p	사후검증
학년	4학년	3.147	.024	ns
	3학년			
	2학년			
	1학년			
학과 선택	추천	3.860	.050	-
	스스로			

ns=not significant

IV. 고 찰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전공선택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일반적 현황에 따른 전공선택 요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 관심 취업영역, 국시불안 및 진로 확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토출된 결과를 근거로 작업치료(학)과 교육 과정안에서 전문 의료인인 작업치료사에 대한 확신과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취업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작업치료(학)과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 9개 학교, 3년제 대학 10개 학교의 총 4,500명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329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학제는 4년제(54.5%), 3년제(45.6%)로 거의 비슷하였고, 응답자 대학 소재지는 경상남도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재학생(85.7%)이 대부분이었다.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고 현재 작업치료사협회에 가입한 작업치료사의 남녀 성비와 유사하다(정민예와 차유진, 2009). 응답자 중 3년 학제가 절반을 차지했고 설문 당시 4학년 학생들이 임상기관에서 실습하는 시기와 맞물려 응답자 중 1, 2, 3학년이 각각 30%전후를 차지한 반면 4학년은 4.1%로 적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재학생(85.7%)이어서 연령대는 만 18세에서 22세가 59.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계열전공은 문과, 이과 모두 40% 전후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응답자들의 작업치료(학)과 입학동기는 주변사람에 의한 추천과 스스로 선택에 의한 경우 둘다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두 경우 모두 취업이 쉽고 작업치료사가 전문직인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추천에 의한 경우,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발적으로 학과를 선택한 응답자는 홍보책자, 친구, 봉사활동의 이유보다는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수집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지원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학부모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담당하는 고3 담임 선생님들에게 학과의 장기적 전망, 취업활동 지원, 취업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실

시간으로 욕구과약이 가능한 인터넷을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과 교육의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특성화와 차별화가 전제 되어야 그 실효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김재우와 정현도, 2005). 또한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 중 하나이고(정민예와 차유진, 2009), 2009년 졸업생 취업률이 83.1%으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인 76.4%보다 높고 국가고시 합격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현재 작업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정신장애(13.0%), 지체장애(12.1%), 자폐성장애(11.4%), 지적장애(11.1%), 언어장애(10.4%), 뇌병변장애(10.0%)순 이었다. 대부분이 작업치료(학)과 교과과정에서 접하고 있는 분야의 대상자들이고 현재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동향의 주요 대상자들이며(유은영, 이재신, 이지연, 박혜연과 유지은, 2011), 작업치료사들의 주 치료분야(이향숙, 2011)와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정신과(24.0%), 직업재활(22.2%), 지역사회 작업치료(19.8%), 재활 보조공학(14.7%)순으로 최근 작업치료의 중점 연구방향들과 매우 유사하다(용준환 등, 2011).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중 68.3%가 졸업 직후 의료기관 취업을 선호하였고, 졸업 후 10년 뒤 희망 취업지에서도 35.7%가 의료기관을 희망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종합병원 취업 희망이 62.6%로 나타났고, 재활병원(21.4%), 아동발달 연구소(6.1%), 보건소(4.4%), 노인요양병원(2.3%), 복지관(2.2%), 재활공학센터(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작업치료사들의 기관별 취업 비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정민예와 차유진, 2009), 종합병원, 재활 병원 이외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립/사립 학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의 다양한 기관으로의 양적,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국시불안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49.6%가 높다고 느끼고 있었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졸업 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남학생들의 국시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장지연, 1989). 또한 입학 당시의 진학 확신에 비하여 현재 진학확신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전공학과에 대한 인식이나 진로방향이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김상진과 김재엽, 2007). 그러나 1, 2학년에 비해 3, 4학년들의 진학확신이 높은 것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전문화된 교과과정, 전공내용, 진로방향, 교수-학생간의 관계에 의해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진로방향과 졸업 후 취업분야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19개 학교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국 작업치료학(과)로 일반화 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교육기관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작업치료(학)과 관련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학생들의 입학 전후의 학과선택 요인과 영향요인, 일반적 현황을 규명하여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고 재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학업상담 및 진로상담에 대한 연구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전공 선택시 중요 고려요인과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토출된 결과를 근거로 작업치료(학)과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인 현황에 따른 학과선택 계기, 관심영역, 관심연령, 희망 취업분야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국시 불안감과 진학확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희망 취업분야 결과에서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작업치료(학)과 학부생들은 정신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 분야로는 작업치료의 핫이슈인 정신과, 직업재활, 지역사회 작업치료, 재활보조공학에 연관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 관심 영역과 연령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부생들의 국시불안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보통 이상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진로확신은 입학 전에 비하여 현재 더 낮게 나타났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학확신은 높게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치료(학)과 학생의 진로 결정, 학과 생활지도의 방향과 작업치료(학)과의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 손진희, 김선경. (1995). 서울대 4학년 재학생 진로계획 조사연구. *학생연구*, 30(1), 297-316.
- 김상진, 김재엽. (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3-14.
- 김수영. (2007).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 김재우, 정현도. (2005). 체육학과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891-900.
- 나동진, 송재홍. (1985). 전공-적성 불일치 학생: 현황과 성격적 특성. 전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6(2), 424-431.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7, 1). 작업치료학과 안내. 2011년 7월 1일 출력. <http://www.kaot.org>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11, 7, 7). 작업치료사 면허등록 현황. 2011년 7월 7일 출력. <http://www.kaot.org>
- 박종원. (2002). 진로 미결정성 척도 개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수원.
- 송유진. (1995). 무용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송윤신, 권순복, 안금선, 김영남, 김수화, 차민주. (2003). K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조사 연구. *경북논총*, 7, 297-316.
- 용준환, 최혜숙, 정원미, 이지연, 박혜연, 조범영 등. (2011). DACUM 기법을 통한 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2), 97-109.
- 유은영, 이재신, 이지연, 박혜연, 유지은. (2011).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동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 29-41.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수진 (2010). 미용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학과 선택 결

- 정요인과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구.
- 이재신, 이택영, 이지연, 유은영. (2004). 최신 작업치료학 개론. 서울: 탐메디오피아.
- 이향숙. (2011). 작업치료사 핵심직무 분석과 경력과 치료 분야에 따른 직무 차이 비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 1-14.
- 장영호, 최미숙, 김은희, 양승경. (2007). 치과위생사들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7(4), 287-293.
- 장지연. (1989). 한국사회 직업의 성별분절화와 경제적 불평등: 성별 임금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정민예, 박혜연, 김정란, 양노열, 유인규, 엄희영. (2009).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사업주의 보조공학기기 이용 실태 및 보조공학 서비스 인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2), 79-89.
- 정민예, 차유진. (2009). 국내 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4), 113-127.
- 정원미, 이재신. (2001). 전국 작업치료과 대학생들의 학과선택기준과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9(1), 55-68.
- 정태욱. (2004). 전문대학생의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수원.
- 최종학. (2003).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한 의학기술부분의 교육방향. 보건과학학술세미나, 11, 41-65.
- 최현정. (2008). 여성 국가고시 준비생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음악심리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1, 6, 28). 작업치료사 시험안내. 2011년 6월 28일 출력. <http://www.kuk-siwon.or.kr>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 한국교육개발원. (2009).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 book*. Monterey, CA: CTB/McGraw-Hill.
- Kotler, P., & Fox, K. F. A. (1995). *Strategic marketing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olbert, E. L. (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Abstract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tudents in Korea I : General Status and Reasons for Major Selection

Park, Hae-Yean^{*}, Ph.D., O.T., Cho, Duk-Youn^{*}, B.H.Sc., O.T.,
Lee, Joo-Hyun^{**}, M.S., O.T., Kim, Han-Sol^{*}, B.H.Sc., O.T.,
Kim, Jin-Su^{***}, B.H.Sc., O.T., Park, Soo-Hyun^{****}, Ph.D.

^{*}Dept. of Rehabilit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nkook University Hospital

^{***}Dept. of Rehabilitation assistive technologie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choosing occupational therapy as their academic major in a nationwide sample of college students and (2) differences in major selection factors, interested area of occupational therapy, and preferences in career field across main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year in college, in addition to anxiety related to the national licensure examination and career confidence level.

Methods : A survey was provided to 4,500 students from nine 4-year colleges and ten 3-year colleges. A total of 1,329 surveys were analyzed in the final analysis.

Results : A total of 831 (62.5%)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had considered other majors before choosing occupational therapy, 588 (44.2%) contemplated changing their major after entering college. 675 (50.8%) chose occupational therapy major secondary to recommendation from others, and 654 (49.2%) self-selected the major. Most of the recommendations were found to be made by parents and teachers, and the primary reasons for such recommendations were related to the high employment potential and the prospect of working as a professional specialist. Among students who picked their major on their own, 419 (64.0%) students obtain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Respondents' current and 10-year post-graduation preferred area of employment to work in a medical setting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The students' current level of anxiety pertaining to the licensure examination was found to be 3.5 on a 5-point scale, with male students showing a higher anxiety level. It wa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degree of confidence regarding their career had decreased since entering college. Freshmen undergraduates reported the lowest career confidence level, with their confidence increasing with year in colleg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potential ways in which departments in occupational therapy may promote their academic majors, in addition to contributing to our knowledge regarding ways to provide better academic as well as career counseling and guidance to students in occupational therapy.

Key words : Academic major, Anxiety, Career confidenc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election